

2011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 일시: 2012년 2월 28일(화) 10:00~12:00
- ▶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단재홀

발 간 사 ■ ■ ■

본 연구성과 발표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수행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5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지금도 느려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등,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더욱 많이 요구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부각된 학교폭력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기 능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왔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비교조사(ICCS)의 결과분석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연구와, 청소년들이 멘토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더불어사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연구성과 발표회는 이 두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미래세대가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더불어사는 능력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비하자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매월 새로운 주제로 이번보다 더 충실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세 부 일 정

시 간	일 정
10:00~10:10	○개회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10~11:10	사회: 이종원(통계조사연구실장)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총괄연구 - 장 근 영 연구위원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연령별 실태조사 결과 - 박 수 역 부연구위원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방안 II : 청소년멘토링활성화방안 연구 - 김 경 준 선임연구위원
11:10~11:45	- 토 론 • 김 태 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한 도 희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 정 지 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

목 차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총괄연구	1
- 장근영 연구위원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연령별 실태조사 결과	27
- 박수익 부연구위원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방안 II : 청소년멘토링활성화방안 연구	37
- 김정준 선임연구위원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총괄연구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총괄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민주시민역량 개념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문제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지니(GINI)계수는 1997년 0.283에서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현재에도 0.310 수준에 올라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분석(2011)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에는 67.5%로 감소한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0년의 7.1%에서 2010년에는 12.5%로 늘어났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초과)의 비율은 1990년 17.5%에서 2010년에는 20.0%로 증가세에 있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구조가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청소년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5년 6,121명에서 2011년에는 36,576명으로 597%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혁신적인 노력과 개인의 계층/문화 포용성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 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공공의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보통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ukuyama, 2001). 그러나 2009년 ICCS 조사에서 발견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적·문화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신뢰수준은 특이하게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신뢰와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화는 일반인들에게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2011년 단 두 명의 개인이 운영하는

텍스트 중심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서 주요강대국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한 결과 발생한 국제적인 파문과, 양방향 매체를 통해서 북아프리카와 이슬람 지역에서 확산된 정치적 변혁은 이러한 변혁의 힘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함을 보여준다. 인터넷은 참여의 경로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현상을 발생시킨다.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투표율은 감소했으나 투표 이외의 영역에서는 젊은층의 사회참여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전통적인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정치와 문화, 사회, 기술이 연계된 주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연령별 격차가 매우 뚜렷해서 12-19세의 청소년 중 82.1%와 20대의 86.7%가 무선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반면, 같은 경험 비율이 30대에서는 58.9%, 40대는 35.9%, 50대는 16.6%로 급속히 낮아진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는 IT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대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양방향 소통매체를 당연히 여기는 N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발전된 IT 인프라를 향유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방향 소통과 참여의 욕구를 증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 이외에는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고 현실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욕구의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의외의 현상으로 분출될 수도 있다.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에는 이러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민주시민역량(Civic Competencies)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개념이다. 민주시민 역량은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지적, 정의적, 행동적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종합했을 때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수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교육효과 국제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가 있다(ACER, 2010a). 이 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와 덴마크로 평균 576점이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로 조사국가 평균(62%)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 18%(전체평균 41%), 학교에 대한 신뢰 45%(전체평균 75%),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39% 역시 조사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겨우 최하위를 면한 51%(전체평균 61%)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경험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즉, 최상위 수준의 시민지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와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는 낮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비교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주시민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및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실시한 ICCS 문항의 일부를 사용해 2011년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민주시민역량 조사의 소개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1999년에 실시한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Civic Education Study)는 최초로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라 할 수 있다. 이 CivEd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에 IEA는 CivEd를 발전시킨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I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를 실시했다(ACER, 2010a).

이 ICCS 조사는 CivEd의 내용영역을 확대하고 인지 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한 것이다. IEA가 민주시민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이 ICCS 조사의 평가 틀을 보면 알 수 있다. ICCS의 평가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째는 민주시민으로서 알거나 내면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 영역으로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체제에 대한 내용,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앞서 언급한 ICCS에서 사용한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정의인 ‘시민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사고력을 실제 일상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은 민주시민역량의 정의와 부합한다. 이 시민성과 시민의식은 언급한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대 내용 영역 모두에 대한 이해와 추론, 적용 능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나머지 두 영역은 각 내용에 관련된 지식과 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말한다. 즉 ICCS에서는 시민역량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하는 셈이다. 이 두 차원 중 첫번째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정의-행동 영역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신념,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행동의 동기, 그리고 실제 행동이 포함된다. 두번째는 인지영역으로서 역시 지식 자체와 추론/분석 능력으로 구분된다. 영역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IEA ICCS 2009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 개념구조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영역	지식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평등 -자유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시민의 자아상
	추론과 분석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	-사회 통합	-공동체 참여	-시민 유대감
정의-행동 영역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	-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	-투표참여의사 -의견표현의사 -정치적향의	-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을 제외하고 정의-행동영역 문항만을 사용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지영역의 문항이 표준적인 조사를 통해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09년 ICCS 조사에서는 인지영역의 80문항을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7개의 분권(booklet)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조사대상자에게는 그 분권 중 한 권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측정하고 이후에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해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인지영역을 제외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지영역에서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2009년 ICCS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영역 점수에서는 핀란드 다음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3개 국가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행동 영역의 문항들을 이용해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의-행동영역은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4가지 내용영역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기준으로 다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그 행동에 대한 자기만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할 의지가 발생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적인 연쇄과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구분은 영역이나 차원이라기 보다는 행동에 이르는 단계(stag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4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가치-신념’ 단계로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인지적 차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태도 단계로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와 적극성을 의미하며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 행동 의도’로서 지금 당장은

<표 2> ICCS 2009 영역별 문항배분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내용 영역 2: 시민 공동체 원리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내용 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 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지식	14문항			4문항			1문항			0문항	
추론과 분석	17문항			22문항			17문항			5문항	
계	31문항			26문항			18문항			5문항	
정의-행동 영역											
가치 신념	12문항			12문항			0문항			0문항	
태도	12문항			18문항			18문항			14문항	
행동 의도							21문항				
행동							14문항				
계	24문항			30문항			53문항			14문항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 그대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는 지금 현재 응답한 청소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로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는) 실제 행동의 단계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인지영역 문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영역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지만, 정의-행동 영역에 문항에 대해서는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중시한다. 이 단계 구분은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에 IEA에서 실시한 ICCS 조사의 한국자료와 본원에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16개 시·도의 중학생(2~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2학년)의 4,324명을 대상으로 ICCS의 정의-행동영역 문항만으로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에 기초한다. 본 분석에서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응답결과만을 분석에 사용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비교를 실시한 이유는 2009년 ICCS에서 조사대상 연령이었던 중학교 2학년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함이었다. 그리고 2009년에 중학교 2학년생 집단이 2년이 지난 201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므로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집단을 비교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문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CS 척도의 정의-행동 영역 문항들이었다.

1) 학교 밖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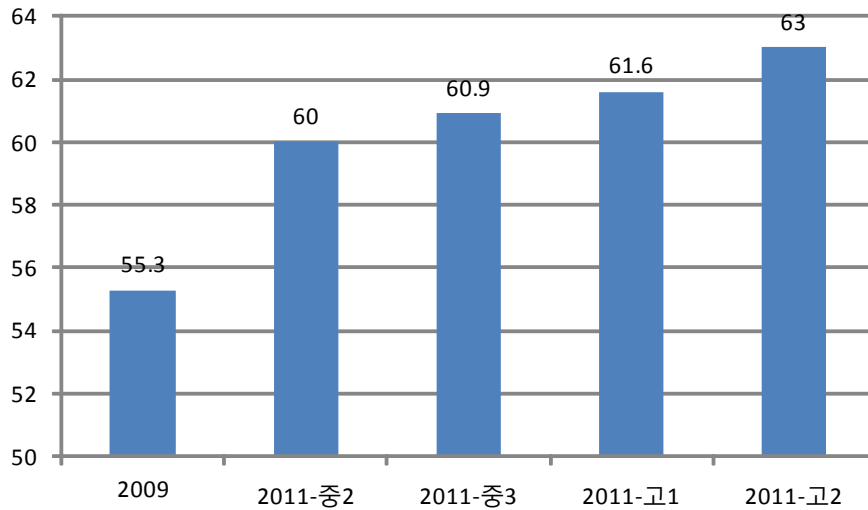
학교 밖 시민참여는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인지적인 참여활동과 실제 학교 밖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의 비율이라는 두 지표로 측정되었다.

첫 번째 지표인 방과 후에 자기가 사는 공동체와 국가,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TV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부모나 또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의 비율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은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표의 전체 평균은 55.3%에서 60.05%로 4.75%

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2011년에 유일하게 낮아진 항목은 신문을 통해서 정치사회 분야의 정보를 읽는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직접적인 비교대상인 중학교 2학년에서는 52.4%에 비해 46.7%로 낮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는 53.4%로 높아졌다. 반면 2009년에 비해서 가장 비율이 높아진 항목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었다.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 이 비율은 2009년의 55.4%에서 2011년에는 74.9%로 19.5%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는 79.7%까지 높아졌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TV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정보화와 청소년들의 높아지는 인터넷 의존도를 반영한 결과로서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관심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 수준의 차이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68.1	79.1	77.9	76.9	76.2
2)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89.5	92.2	90.7	90.0	92.1
3)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52.4	46.7	49.7	51.4	53.4
4) 우리나라 정치사회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56.2	55.8	56.9	60.7	65.4
5)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55.4	74.9	77.0	78.3	79.7
6)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73.1	78.0	75.6	74.2	75.7
7)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37.9	38.3	41.8	43.1	46.5
8)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한다	10.0	15.4	17.3	18.3	15.1
평 균	55.3	60.05	60.86	61.61	6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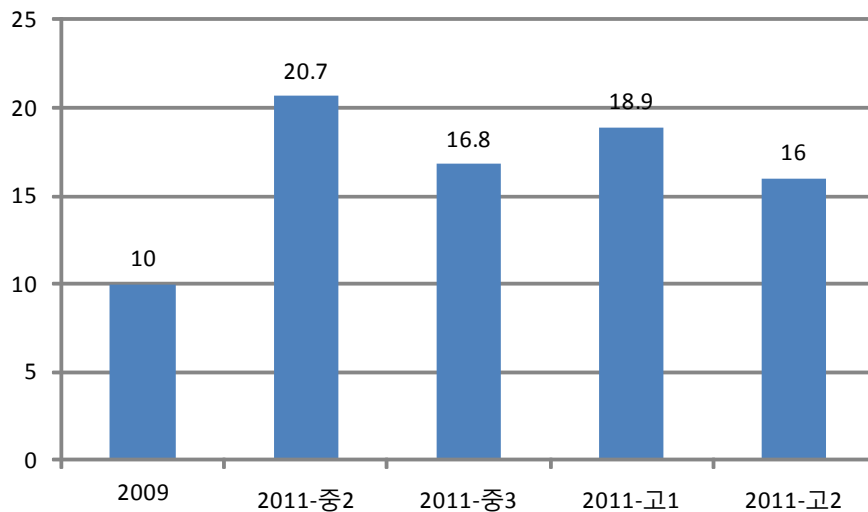
[그림 1]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수준의 차

학교 밖 시민참여에 관한 두 번째 지표는 실제로 학교 밖에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였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 ‘실제 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활동은 자원봉사단체 참가였으며, 증가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인권운동단체였다. 그러나 인권운동단체의 참가율 자체가 2009년에 2%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 자체는 3배나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문화단체에의 참가율도 1.7%에서 6.5%로 3.8배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참가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반적인 참여율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입시로 인한 학업부담으로 추정된다.

<표 4>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다.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환경운동단체	5.1	19.3	12.8	16.9	13.3
2) 인권운동단체	2.0	6.0	4.0	5.2	4.8
3) 자원봉사단체	17.7	38.1	35.1	37.9	35.8
4) 기부단체	8.0	24.5	18.2	20.2	15.6
5) 외국인문화단체	1.7	6.5	3.5	4.1	3.6
6) 종교단체	25.3	29.7	25.8	26.6	22.1
7) 청소년캠페인활동	10.4	20.6	18.0	21.2	16.9
평 균	10.03	20.67	16.77	18.87	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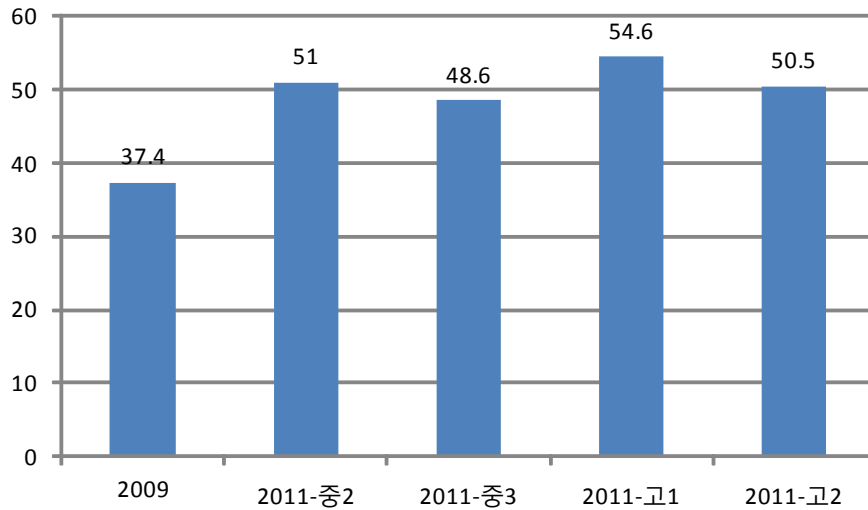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의 변화

2) 학교 내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으로는 방과후 교내 활동에의 참여와 각종 학급토론, 학교 임원 선거에의 투표와 직접 출마,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의 토론에 참여 등이 있다.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이 문항도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 ‘실제 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에 대한 응답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매우 뚜렷한 증가양상이 발견되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2009년에 비해 더 많은 학교 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평균 13.7%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6.5%에 달했다. 교과서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 영역과는 달리 민주시민 역량의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인 참여와 이를 장려하는 환경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도 역시 학년 증가에 따른 감소양상이 발견되었다. 학업 부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중학교 2학년에서 높아진 교내활동 참여율의 원인에 있어서도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은 활동지표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학교 내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음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방과 후 활동에 자발적 참여	23.1	60.6	54.4	63.1	58.4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32.6	54.0	53.4	61.2	53.3
3) 반장/학생회장 임원 투표	76.3	80.3	84.9	80.4	82.9
4)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33.0	38.7	38.2	46.3	43.4
5) 학생회 토론 참여	26.3	31.5	25.7	34.9	27.3
6) 반장/ 학생회 임원 출마	32.8	40.7	34.9	41.5	37.7
평 균	37.35	50.97	48.58	54.57	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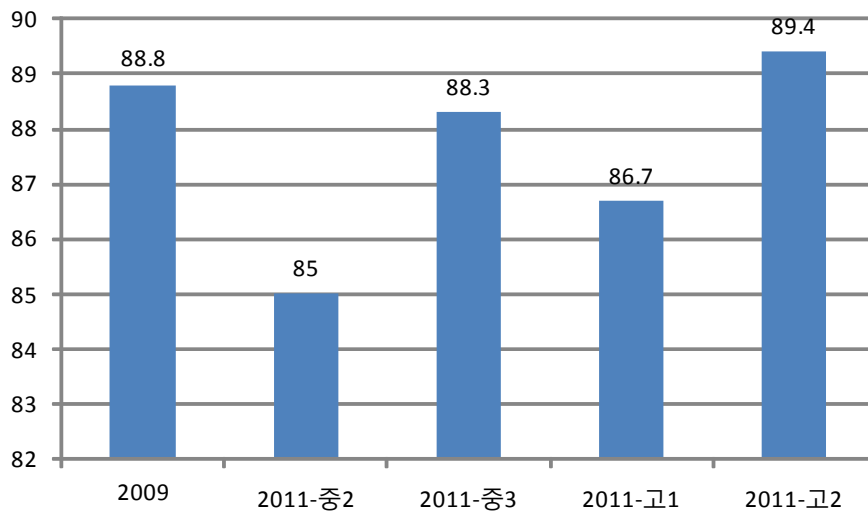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내 시민참여(%)의 변화

3) 시민사회의 원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체계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원리Civic principle’(내용영역 2)영역의 ‘가치와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감소했다(평균 3.76% 감소). 청소년들이 긍정한 비율이 유일하게 2009년에 비해 증가한 항목은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정부에서 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항으로서 이는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변화한 우리 정치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 급속하게 더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올바른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 비율(%)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94.7	96.0	95.3	96.6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56	62.6	66.0	61.6	67.9
3)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82	80.3	84.1	84.1	86.8
4)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97	90.0	93.7	92.0	94.1
5)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88	87.2	90.1	87.6	92.0
6)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87.7	93.4	91.8	93.1
7)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97	90.6	92.6	91.3	94.3
8)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94	86.8	90.5	89.8	90.4
평 균	88.75	84.99	88.30	86.69	8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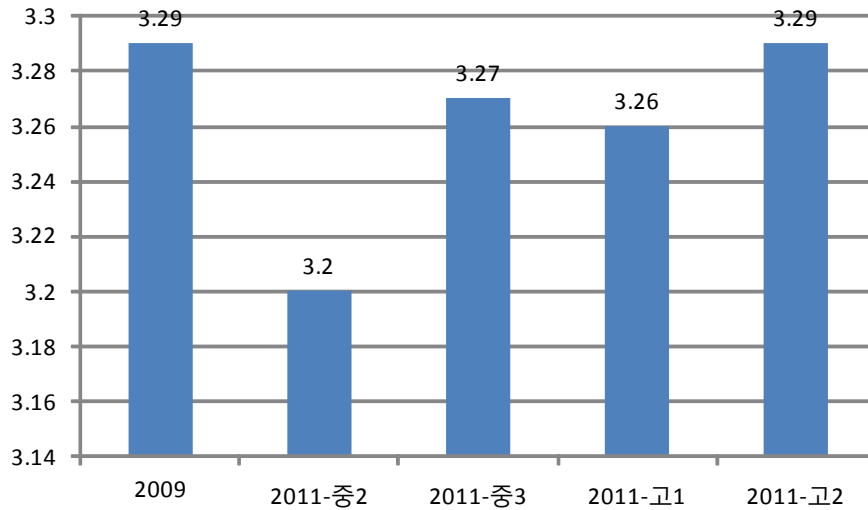
[그림 4] 올바른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비율의 변화양상

4) 좋은 시민의 조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조건과 그 구성요건’(내용영역 1)에 관한 ‘가치와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다. 비교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의 수준이 낮아졌다. 동의지수의 평균은 2009년에 비해 2.8% 감소한 3.2점이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년 전인 2009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들의 현재 지표를 보면 향상보다는 정체 혹은 퇴보의 양상이 발견된다.

<표 7>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4점 만점)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참여	3.36	3.12	3.18	3.18	3.18
8)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3.08	3.05	3.11	3.14	3.14
9) 인권증진운동 참여	3.14	3.00	3.06	3.05	3.09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3.26	3.15	3.18	3.22	3.24
11) 열심히 일하기	3.44	3.50	3.62	3.58	3.64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3.46	3.36	3.49	3.41	3.44
평 균	3.29	3.20	3.27	3.26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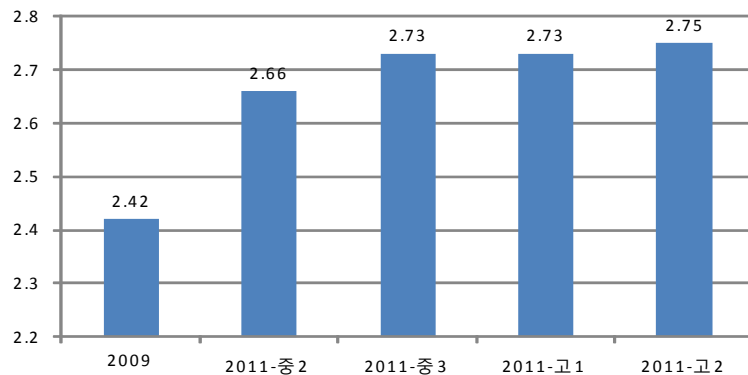
[그림 5]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

5) 자신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Civic identities(내용영역 4)영역의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들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본 문항은 이러한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측정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2009년 조사와의 비교 결과, 2011년의 청소년들은 전에 비해서 시민으로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관심 지표는 평균 0.24점 (9.9%) 증가했으며 증가양상은 모든 문항에서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관심 지표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자기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44포인트 (20.2%) 증가했다.

<표 8> 정치적 관심(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	2.17	2.61	2.67	2.69	2.68
2)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적 이슈	2.55	2.66	2.78	2.80	2.84
3)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	2.70	2.87	2.96	2.99	3.08
4) 다른 나라 내부의 정치문제	2.19	2.42	2.49	2.43	2.37
5)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 정치문제	2.37	2.55	2.67	2.67	2.66
6) 환경 보호 문제	2.57	2.86	2.83	2.83	2.87
평 균	2.42	2.66	2.73	2.73	2.75



[그림 6] 정치적 관심(평균)의 변화양상

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태도가 2009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 체계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원리’ Civic principle(내용영역 2)영역 중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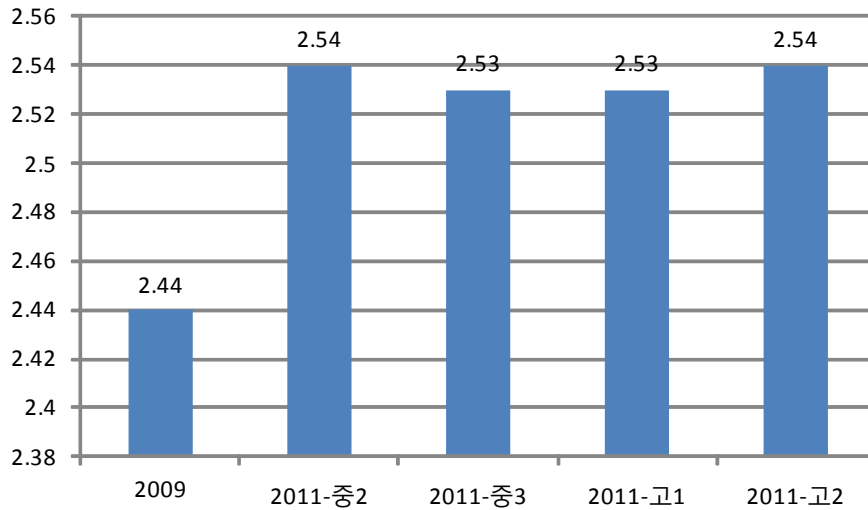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지만 문항들 중에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긍정하는 문항과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문항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역산(reverse coding)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교결과,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양상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가장 뚜렷하게 증가한 항목은 동일 노동시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정도로 2009년에 비해 0.42포인트(13.5%) 증가했다. 또한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의견(남자만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각각 0.17포인트 (13.1%)와 0.13포인트 (7.7%) 증가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3.54	3.48	3.61	3.53	3.57
2)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3.57	3.48	3.60	3.52	3.55
3) 여자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r)	1.29	1.46	1.39	1.38	1.38
4)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r).	1.72	1.88	1.79	1.85	1.89
5)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3.09	3.51	3.52	3.53	3.55
6) 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r).	1.68	1.81	1.75	1.77	1.75
7) 여성의 우선적 책임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다(r).	2.16	2.15	2.06	2.13	2.08
평 균	2.44	2.54	2.53	2.53	2.54

* r 표기 항목은 reverse co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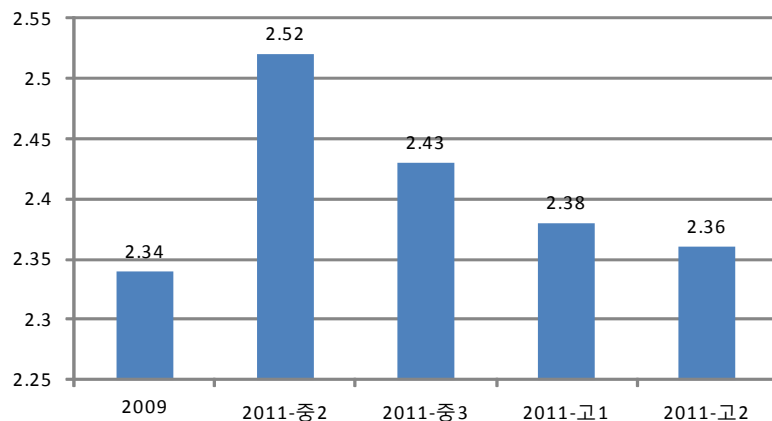
[그림 7]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양상

6)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와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다.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ICCS의 분류체계에서 이 문항은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그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s)의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전체의 평균점수는 0.18점(7.6%)이 증가했으며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로서 이 항목에 대한 신뢰점수는 0.09포인트 (3.5%) 줄어들었다.

<표 10>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중앙정부 부처 (행정부의 모든 부처)	2.09	2.32	2.23	2.17	2.11
2) 지방자치정부 (도청, 시청 등)	2.16	2.38	2.33	2.29	2.26
3) 법원	2.58	2.73	2.62	2.62	2.53
4) 경찰, 검찰	2.41	2.65	2.52	2.47	2.44
5) 정당	1.94	2.24	2.10	2.06	2.00
6) 국회	1.94	2.23	2.12	2.03	1.99
7) 미디어 (TV, 언론사, 라디오)	2.58	2.49	2.45	2.37	2.34
8) 군대	2.32	2.56	2.43	2.38	2.42
9) 학교	2.44	2.60	2.45	2.48	2.49
10) 국제연합(UN)	2.86	2.97	2.86	2.79	2.80
11) 일반대중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2.39	2.55	2.62	2.57	2.60
평 균	2.34	2.52	2.43	2.38	2.36



[그림 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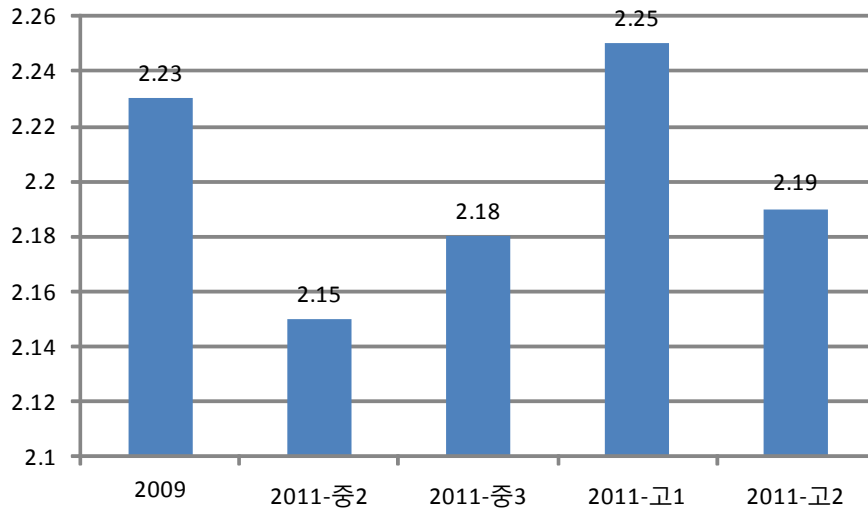
7) 미래 행동의도: 합법적/비합법적 항의

현재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에 참여 할 의사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응답결과를 비교했다. 측정은 확실히 참여함 (4점)부터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음(1점)까지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4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우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합법적인 항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08포인트(3.6%) 감소했는데 감소량이 가장 큰 항목은 신문에 편지를 보내 항의를 하겠다는 문항으로 0.15포인트(6.7%) 감소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은 선출직 공무원을 만나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항목이었는데 2009년에는 가장 낮았던 이 항목의 점수가 2011년에는 0.08포인트(3.9%) 증가해서 항의 의사로 뱃지를 달겠다는 의도보다 더 높아졌다. 합법적인 경로로 자신의 항의의사를 표현할 의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1>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신문에 편지 보내기	2.24	2.09	2.09	2.11	2.06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2.14	2.02	2.03	2.07	1.99
3)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 만나기	2.02	2.10	2.06	2.15	2.04
4) 비폭력 평화 집회에 참여하기	2.40	2.35	2.38	2.50	2.45
5) 진정서 서명 모으기	2.35	2.22	2.31	2.40	2.40
6) 상품 불매 운동하기	2.20	2.15	2.21	2.25	2.23
평 균	2.23	2.15	2.18	2.25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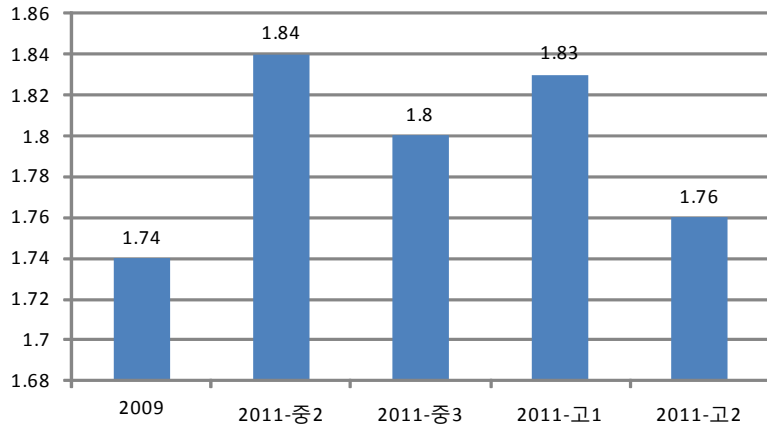


[그림 9]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

비교한 결과,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보다는 뚜렷하게 낮았다. 그러나 그 수준은 2009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평균 0.1포인트(5.74%)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도로를 막고 항의집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에 비해서 0.15포인트(9.03%) 증가했다. 반면에 공공건물을 점거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증가했다.

<표 12>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벽에 항의 표어를 스프레이로 그리기	1.83	1.91	1.88	1.88	1.79
8) 도로를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66	1.81	1.78	1.83	1.75
9) 공공건물 출입을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74	1.79	1.75	1.79	1.73
평 균	1.74	1.84	1.80	1.83	1.76



[그림 10]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의 변화양상

이 결과를 요약하면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이는 합법적인 항의의 기회가 제한되었거나 혹은 합법적 항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합법적인 항의가 보다 효과적인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가 증가할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 시민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는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민주시민역량 변화라고 볼 수 있다.

8) 미래행동의도: 정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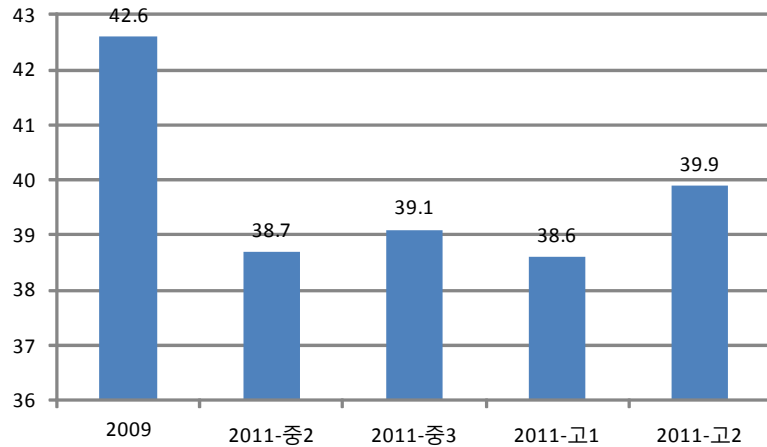
ICCS의 분류체계에서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해당하는 또 다른 문항은 성인이 되어 다양한 정치활동에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해당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선출직 투표에 참여할 의사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지방정부 투표 참여의사는 2009년 대비 18.6% 포인트(22.4%) 감소했고, 중앙정부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도 18.6% 포인트(21.4%) 감소했다. 또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는 응답도 10.5% 포인트(16.9%) 감소했다. 즉 투표의사 자체도 줄었고

선거에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감소했다.

반면에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겠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으며(9.7% 포인트, 56% 증가) 정치단체(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도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인 투표에의 참여의지는 비교적 줄어든 반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사는 이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단,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항목들이 모두 20% 이하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지역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82.8	64.2	69.7	69.4	76.6
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86.9	68.3	73.4	73.8	79.1
3)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61.9	51.4	52.3	53.1	59.6
4)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기	17.3	27.0	23.2	21.6	18.1
5) 정치단체가입	15.3	20.2	17.5	16.7	14.1
6) 노동조합 가입	18.4	20.8	20.1	20.5	19.8
7)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16.2	19.1	17.5	15.2	12.1
평 균	42.6	38.7	39.1	38.6	39.9



[그림 11]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의 변화

4. 결과 요약 및 논의

2009년도 ICCS 조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향상된 지표와 하락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은 2009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전에 비해서 TV나 신문보다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뚜렷했지만 청소년들은 자기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학교 내외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에서 13.7% 까지 증가했다. 단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증가현상이었을 뿐이며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단체 활동 참여율은 모두 낮아졌다. 또한 2011년의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에 비해서는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였다.

마지막으로 투표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다.

정치단체(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도 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투표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감소했다. 즉 투표의사 자체도 줄었고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도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연령별 실태조사 결과

박 수 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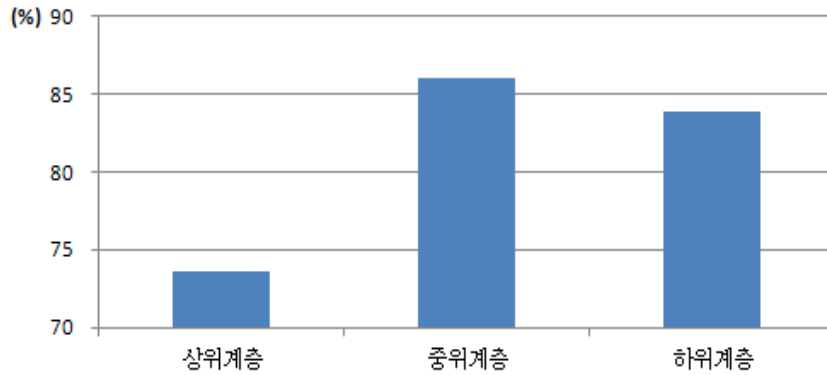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연령별 실태조사 결과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결과는 앞서 발표한 총괄보고서의 연장선에 있다. 본 분석에서는 특히 연령별, 성별, 그리고 학교유형별 정의적-행동적 영역의 민주시민역량 차이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괄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16개 사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에 기초한다. 조사 문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SS 척도의 정의-행동 영역 문항들이었다. 이 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로 기술하였으며, 여기서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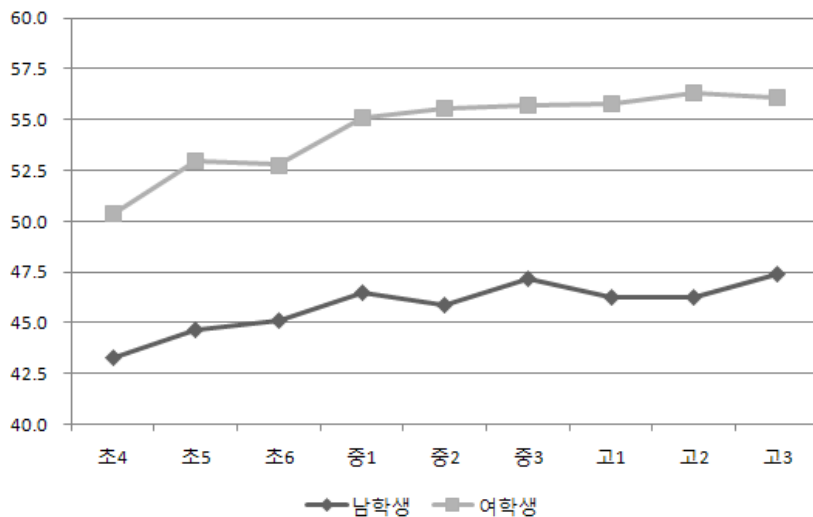
1) 아동·청소년의 가치신념과 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민주시민적 태도의 차이였다. 상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소득격차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4명 가운데 1명꼴은 계층간 소득 차이는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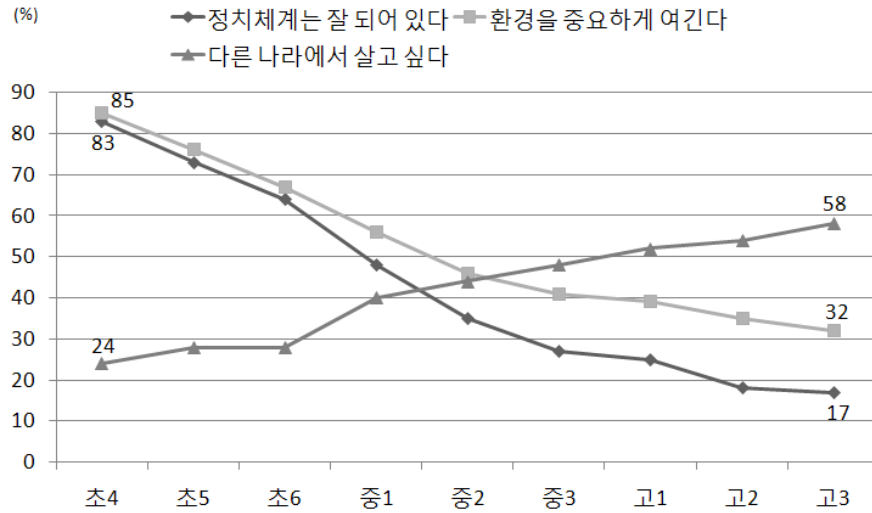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평등(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여, 성평등 의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뚜렷이 낮았으며, 부모 학력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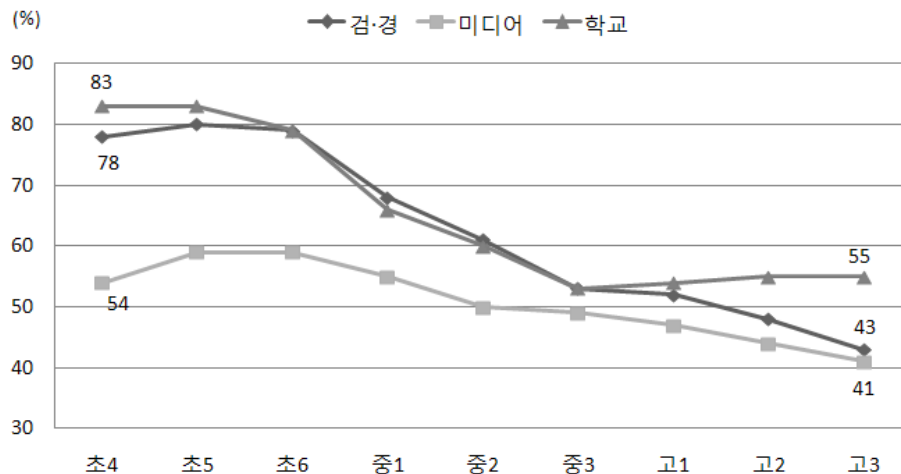
[그림 2] 학년별 성평등 의식의 남녀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애착 정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83%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고 초등학생들의 27%가, 중고등학생들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림 3] 학년별 국가에 대한 애착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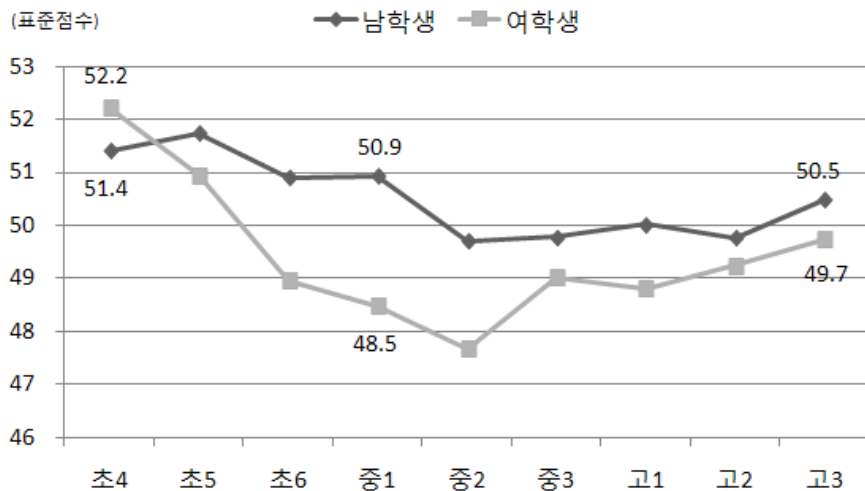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3대 헌법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정도였으나 입법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절반이상은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학년별 공공기관(검·경, 미디어, 학교)에 대한 신뢰

2)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스스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나 시민적 참여가 가능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을 의미하는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여학생들은 고등학생 시기에 향상되는 반면 남학생들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학년별 시민적 자아 효능감에서의 남녀 차이

청소년들의 교내 활동 참여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학업성적에 따른 격차가 뚜렷해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의지는 투표 행위나 평화적인 항의 집회에 대해서는 높았으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참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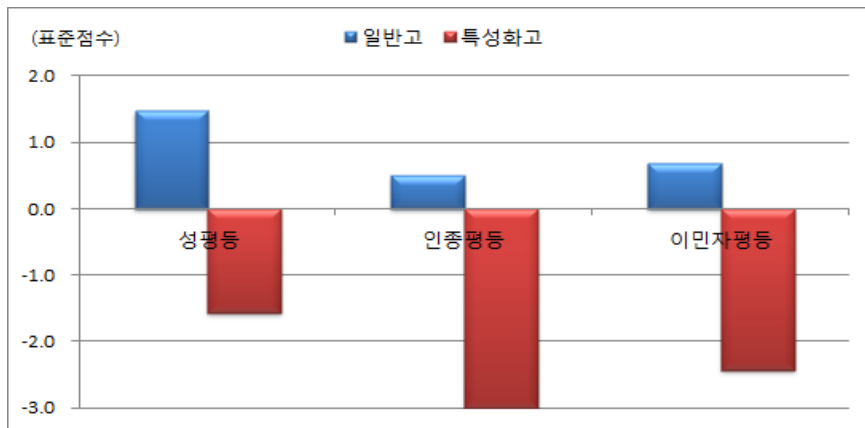
3)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밖 시민단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시민성 수준이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과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 사이의 투표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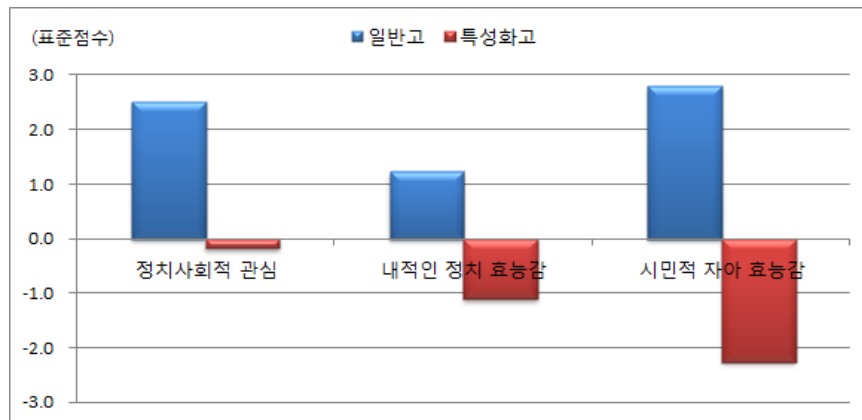
의지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의 참여 의지는 시민성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치사회적인 관심과 정치적 자기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현실 참여적인 성향이 강하며, 반대로 낮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인 참여 행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능감이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참여 행위에 대한 의지도 약했다.

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비교

본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였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보다도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과 이민자 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자신 신념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내적인 정치 효능감과 자아 효능감에 있어서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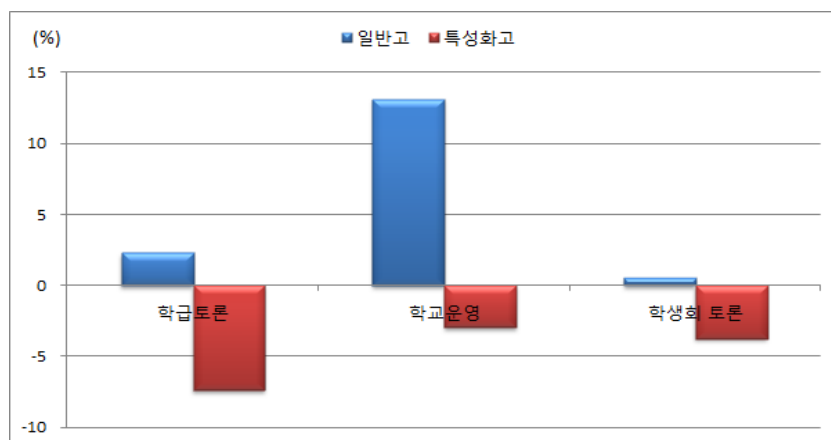


[그림 6]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등 의식



[그림 7]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심과 자기 신념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모든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대적 참여율은 낮았다.



[그림 8]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

반면에 일반계고 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애국심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난 이러한 사회심리적 태도에서의 차이는 미래에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에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2.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시민적 소양과 행동 특성에 대한 실태 조사이다. ICCS의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성 향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적 평등 의식, 시민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 시민적 참여 행위 의도, 시민으로서의 실천적 행위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결과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여학생들의 시민역량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사회적 평등 의식은 남학생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 의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혹은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서도 더 높은 공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평등은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정치적/사회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이유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의 성차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애국심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국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에 이르러 학생들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고등학생들 5명 가운데 4명은 국가에 대한 애착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없었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서도 현저하게 낮은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학교교육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현실 정치와 사회의 모습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시민성 및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는 실제 참여 행위 및 미래의 행위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행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참여에 대한 자기 확신은 실제 참여 행위와 성인이 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내용이 지식이나 이론 중심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이나 확신을 길러주는 방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간에 시민역량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시민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학생들과 비교해도 시민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시민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특성화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방안 II: 청소년멘토링활성화방안 연구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O TO THE WORLD !!
GO TO THE FUTURE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방안 ||: 청소년멘토링활성화방안 연구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PI 국무총리실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목 차

NPI 국무총리실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주요 결과 및 정책제안

2/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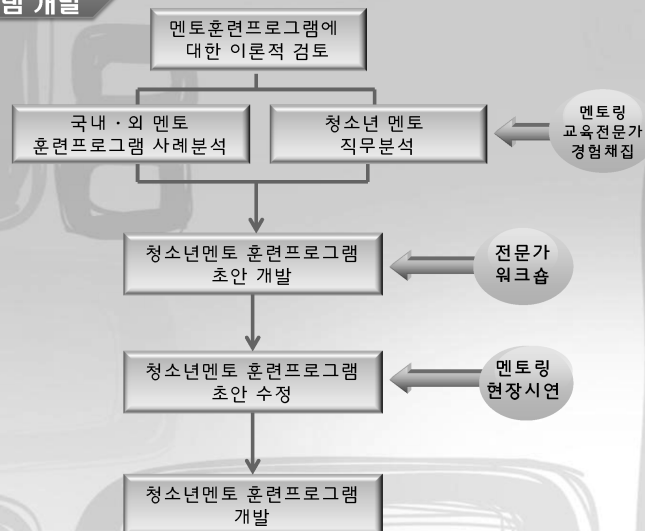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형식적 참여, 지속성 부족의 문제
- 청소년의 동하급생 지도, 멘토링에 대한 높은 욕구
- 저소득취약 아동 증가와 낮은 복지서비스 수혜율
 - 저소득취약아동 109만명
 - 복지서비스 수혜율 4% 미만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상호 성장기회 제공



3/14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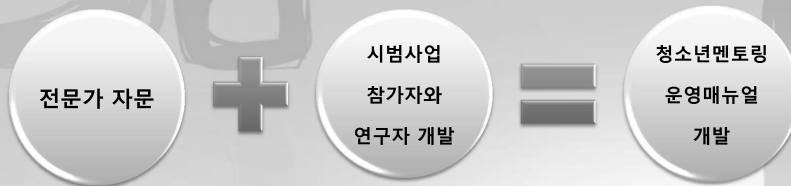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4/14

2. 연구내용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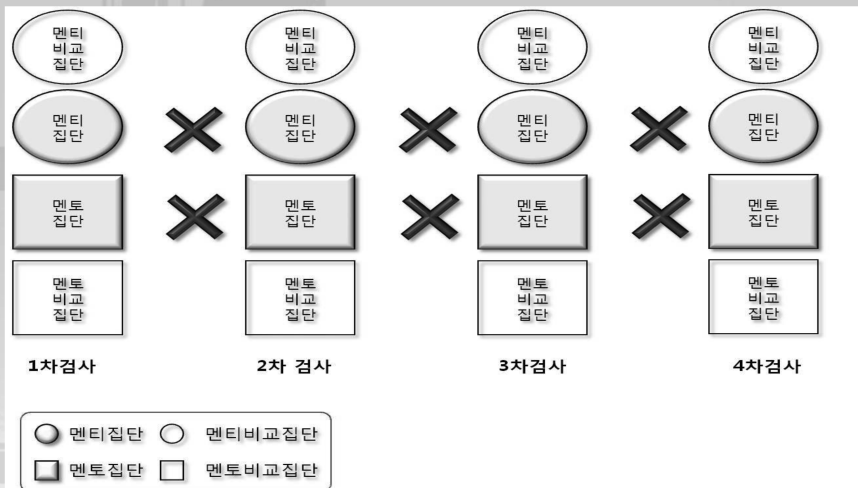


5/14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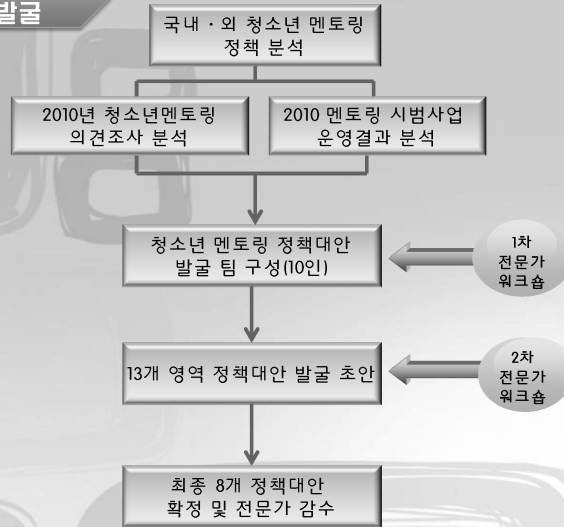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 초,중,고 멘토 + 저소득아동 멘티 6개 모델(멘토,멘티 각 40명)
- 시범사업기간 : 1년 6개월 (2011년 2월~2012년 8월)



2. 연구내용

청소년멘토링활성화 정책과제발굴



7/14

3. 주요결과

1)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프로그램 12회기 개발

- | | |
|--------------------------------|-----------------------------|
| ① 멘토링의 이해 | ⑦ 멘토링 의사소통 기술 1. |
| ② 멘토의 자질과 역할1.
{자기이해} | ⑧ 멘토링 의사소통 기술2. |
| ③ 멘토의 자질과 역할2.
{멘토로서의 자기이해} | ⑨ 멘티문화 이해하기 |
| ④ 멘티의 발달이해 | ⑩ 멘토링 문제해결 |
| ⑤ 멘토링 과정의 이해 | ⑪ 멘토들의 시간관리 |
| ⑥ 멘토링 공감기술 | ⑫ 멘토링 종결과 사후관리
{아름다운 이별} |

8/14

3. 주요결과

프로그램 1회기

멘토링의 이해

1) 목표

- [1] 멘토에 대한 개념을 안다.
- [2] 멘토 지원동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2) 준비물

- [1] PPT 자료(교육용자료),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A4용지, 필기도구, 색연필 등

활동내용		배정시간(50분)
도입	• '멘토' 하면 떠오르는 단어? • 브레인스토밍하기	10분
전개	• 브레인 스토밍을 범주화 하기	30분
	•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는?	
	• 나는 왜 '멘토' 가 되기로 했는가? • 자기소개와 멘토지원동기 발표하기	
정리	• 멘토에 대한 생각정리	10분

9/14

3. 주요결과

프로그램 1회기

PPT 자료

브레인스토밍 범주화하기



멘토링 멘토교육 프로그램 멘토 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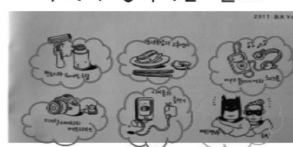
멘토링 멘토교육 프로그램 멘토 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는!



멘토링 멘토교육 프로그램 멘토 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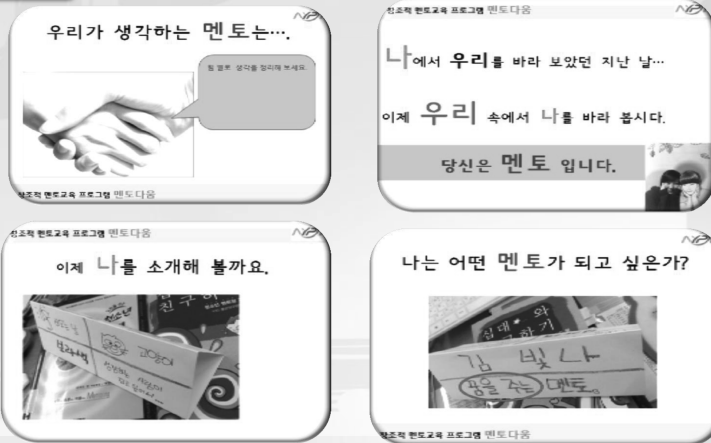
멘토링 멘토교육 프로그램 멘토 다움

10/14

3. 주요결과

프로그램 1회기

PPT 자료



11/14

3. 주요결과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제 목	구 성	세 부 내 용
1장 청소년멘토링의 이해	1. 청소년멘토링의 역사와 의미	1) 신화 속의 멘토이야기 2) 현대적인 의미의 멘토 사용 3) 국내·외 멘토링의 역사 4) 멘토링, 튜터링, 코칭의 차이 5) 청소년멘토링의 개념
	2. 청소년멘토링의 유형	1) 비공식 멘토링과 공식 멘토링 2) 일대일 멘토링과 집단 멘토링 3)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과 학교 기반 멘토링 4) 대면적 멘토링과 e-멘토링 5) 청소년멘토링, 또래멘토링, 교차연령 또래멘토링
	3. 청소년멘토링의 기대 효과	1) 멘토에게 기대되는 효과 2) 멘티에게 기대되는 효과

12/14

3. 주요결과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제 목	구 성	세 부 내 용
2장 청소년멘토링의 구성요소	1. 인적 구성요소	1) 멘티 2) 멘토 3) 결연관리자 4) 수퍼바이저 5) 멘토 펠로우
	2. 내용적 구성요소	1) 학습활동 2) 개인 성장활동 3) 미래 진로 탐색활동 4) 즐거움·재미 활동 5) 지역사회 봉사활동
3장 멘토링프로그램의 운영과정 및 활동 사이클	1. 사전준비	사전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2. 모집 및 선발	1) 멘토 모집 방법 2) 멘토 적격심사 및 선발 3) 멘티 선발
	3. 사전/계속 교육	1) 멘토 교육 2) 멘티교육

13/14

3. 주요결과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제 목	구 성	세 부 내 용
3장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및 활동 사이클	4. 결연 맺기	1) 첫 만남에서 대화 및 활동 계획 세우기 2) 활동 기간 동안 서로 지켜야 할 원칙 정하기 3) 멘티에 관한 정보 파악하기
	5. 활동하기	1) 상호신뢰감 형성 및 인정하기 2) 멘티의 욕구와 당면한 문제 탐색하기
	6. 종결 및 평가하기	1) 멘토링 상황을 조절하기 2) 멘티의 자기주도성 강화하기 3) 종결 후 관계 지속하기 4) 프로그램 평가하기
4장 멘티·멘토의 특성과 활동 시 주요이슈	1. 멘티의 특성	1) 가족유형, 2) 성별 3) 연령, 4) 경제상황
	2. 청소년멘토의 특성	1) 중학생멘토의 특성 2) 고등학생멘토의 특성 3) 대학생멘토의 특성

14/14

3. 주요결과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제 목	구 성	세 부 내 용
4장 멘티·멘토의 특성과 활동 시 주요이슈	3. 청소년멘토의 책임과 역할	1) 청소년멘토의 책임 2) 청소년멘토의 역할
	4. 청소년멘토로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	1) 청소년 멘토와 멘티의 욕구 충돌 2) 타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미숙함 3) 멘티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미숙함 4) 멘토링에 대한 융통성 부족 5) 멘티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미흡
5장 성공적인 청소년멘토가 되기 위한 전략과 기술	1. 성공적인 청소년 멘토가 되기 위한 전략	1) 준비단계 2) 발견과 협상의 단계 3) 상호 간 라포와 신뢰형성단계 4) 목표를 성취하는 단계 5) 멘토링 종결단계

15/14

3. 주요결과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매뉴얼 개발

제 목	구 성	세 부 내 용
6장 성공적인 청소년멘토링 사례	1. 도시지역 청소년 멘토링사례	1) 중학생멘토링 사례 2) 고등학생멘토링 사례
	2. 농촌지역 청소년 멘토링 사례	3) 대학생멘토링 사례

16/14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1) 멘토링활동의 멘티에 대한 효과

첫째, 단기적(4~5개월)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멘토링활동 후에 비교집단에 비해서 자기유능감,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친구유대감의 평균값이 증가, 우울과 일탈행동은 평균점수 감소

※ 여자 멘티와 도시 멘티에게는 멘토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자 멘티와 농어촌 멘티에게서 일탈행동이 감소 효과

※ 농어촌 중학생 멘토프로그램에서 멘티들에게 우울감이 감소하는 효과, 도시지역 고등학생 멘토프로그램에서 멘티들에게 자기유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효과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둘째, 7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 멘토링활동이 멘티의 태도와 학교생활 및 사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셋째, 멘티에 대한 멘토링 효과는 멘토와의 관계, 멘토링 참여도, 멘티가받고 있는 서비스 중 문
화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 특히, 멘토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

	멘토링 참여도	멘토와의 관계	개인 상담	학습 지도	문화 활동	예체능 활동	수련 활동
낙관성	-.036	.265**	-.108	-.007	.214**	.015	-.179*
행복감	.001	.212*	-.044	-.103	.176*	-.032	.005
도움요청에 대한 신념	-.028	-.199	-.089	-.044	.083	.085	-.157
사회적지지	.020	.347**	-.027	-.028	.090	.019	.031
친구유대감	.064	.201	.017	-.058	.002	-.061	.071
부모유대감	-.157*	.181	.028	-.095	.182*	.003	.149
자기표현	.059	.241*	-.037	.000	.204*	-.044	.008
자아존중감	-.078	.287**	-.002	-.098	.257**	.105	-.132
자기유능감	.035	.213*	-.060	-.101	.099	.098	-.033
자아탄력성	-.030	.346***	-.003	-.044	.182*	-.035	-.085
지역사회 유대감	.277***	.247*	-.051	-.153	.121	-.138	-.059
학교유대감	.223**	.299**	-.098	-.062	-.001	.022	-.070
공격성	.020	-.103	-.130	.024	.029	.026	.106
우울	-.030	-.117	-.014	.120	-.011	.019	.053
일탈행동	-.012	-.240*	-.173*	.152	.157	-.028	.007

*p<.05 **p<.01 ***p<.001 주 : 통제변인은 성별, 경제적 수준, 연령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2) 멘토링활동의 멘토에 대한 효과

첫째, 멘토링활동 후에 멘토에게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자 멘토 : 아동에 대한 이해 증가, 남자 멘토 : 사회적 책임감 증가.
- ※ 도시지역 멘토 : 멘토링활동 참여 후에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 증가
농어촌 멘토 : 아동에 대한 이해와 자아효능감 증가
- ※ 중학생 멘토 : 비교집단에 비해서 성취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증가
고등학생 멘토 :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 증가
대학생 멘토 : 아동에 대한 이해, 자신감,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진로성숙도 증가



3. 주요결과

3)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측정

둘째, 멘토에 대한 멘토링 효과는 멘토의 사회활동참여경험, 멘토링 만족도, 멘토링 기간 등과 관련. 특히, 사회활동 참여 경험은 가장 중요한 변수

	사회활동 참여경험	멘토링 자발적 참여	멘토링 만족도	멘토링 참여경험	멘토링기간
아동에대한이해	.142	-.329*	.514**	-.082	.169*
사회적책임감	.308***	-.237	.516**	-.073	-.005
이타성	.156	-.160	.461**	.004	.043
성취감	.179*	.102	.031	.067	.004
자신감	.238**	.218	-.023	-.013	.087
자기표현	.332***	-.003	.050	-.085	.088
대인관계기술	.322***	.026	.112	-.162*	.090
자아존중감	.227**	.120	.053	.000	.049
자기유능감	.272**	.225	-.014	.012	.108
자기효능감	.290***	.083	.123	-.014	.038
자아탄력성	.200*	.052	.199	.006	-.046
지역사회유대감	.136	.020	.164	-.017	.014
학교유대감	.116	.167	-.042	.116	-.066
미래에대한생각	.336**	-.104	.328*	-.025	-.005
진로성숙도	.271**	-.124	.384*	.046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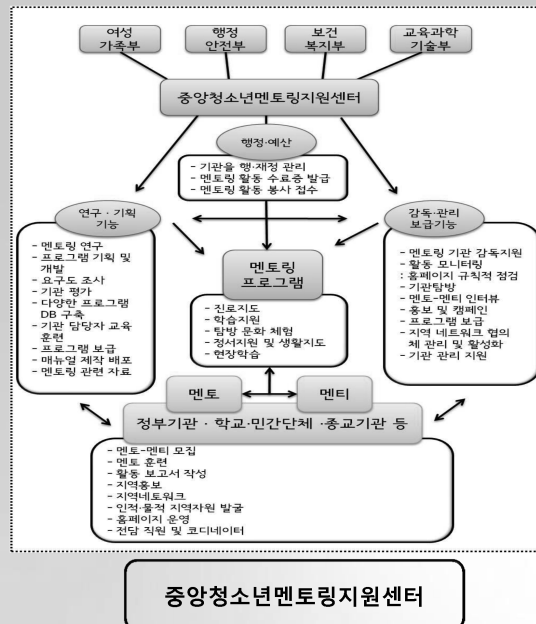
*p<.05 **p<.01 ***p<.001 주 : 통제변인은 성별, 경제적 수준, 연령

3.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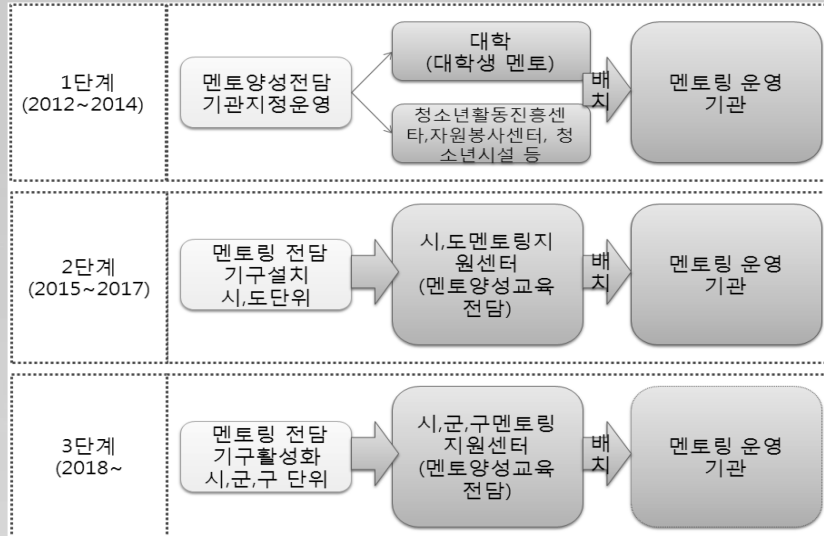
4)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과제

- | | |
|---------|----------------------------------|
| 정책제안 1. | •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청소년 멘토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정책제안 2. | • 우수 멘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 정책제안 3. | • 창의적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
| 정책제안 4. |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 정립지원 |
| 정책제안 5. | • 사회적 공신력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실시 |
| 정책제안 6. | • 청소년멘토링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
| 정책제안 7. | •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
| 정책제안 8. | •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 개선 |

4)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과제



4)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과제



단계별/년도별 멘토 양성체계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2-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 김현철·이기봉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순용 · 김국현 · 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 11-R15 한 · 중 · 일 · 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임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2011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인 쇄 2012년 2월 25일

발 행 2012년 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